

이행기 정의 서사전략으로서의 4·3 전사(前史) 다시 쓰기와 제주 민중/여성의 복원*

—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1991)을 중심으로

김 소 영**

요약

이 글은 민주화 이행기에 발표된 제주 작가 한림화의 4·3 소재 장편소설 『한라산의 노을』을 살핌으로써, 아직 종결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이행기 정의 실현의 문제를 재인식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시기 제주사회에서 많은 이들에 의해 주창되었던 4·3 민중항쟁론은 오늘날 ‘역사화’된 4·3의 기억이 간과하는 어떤 꿈이나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여기서 다시 작가 한림화는 ‘민중항쟁’으로 호명된 4·3 당시의 기억에서 간과된 어떤 꿈이나 가능성에 주목하였는가를 살폈다.

리얼리즘적 역사소설의 형식을 취한 이 소설은 4월 3일의 붕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순간들에서 ‘민중’이 출현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4·3 전사(前史)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전략은 1980년대 말 이후 4·3을 민중항쟁으로 재평가한 제주사회 기억투쟁의 한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소설은 경찰권력의 작동으로 박탈적 상황을 재경험한 민중들이 단결적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며 4·3의 역사를 한반도 탈식민 해방운동의 계보에 편입시킨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작가의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인간해방’으로서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으로서 4·3과 그 이전 항쟁사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폭력적(남성성) 정치구조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돌봄 윤리가 체화된 여성성(비폭력)에서 찾는다. 이로써 죽음/죽임 대신 ‘살리는 삶’을 지향하는 여성주의적

* 이 논문은 2024년도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4·3융합전공 지원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가치를 4·3의 역사로부터 끌어올린다. 민주화 이행기 국면에 시도된 제주 작가 한림화의 이와 같은 기억투쟁 전략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행기 정의 실현 문제를 새롭게 돌아보게 한다.

주제어: 제주 4·3, 4·3문학, 기억투쟁, 민중항쟁론, 이행기 정의, 여성주의

목차

1. 들어가며: 4·3 기억투쟁의 경로와 이행기 정의의 미결성
2. 민주화 이행기의 민중 담론과 4·3 민중항쟁론
3. 식민주의적 박탈의 재인식, 기층민중의 정동과 수행적 실천
4. 제주 여성들의 저항성, 민중 담론의 확장과 전복의 상상력
5. 나가며

1. 들어가며: 4·3 기억투쟁의 경로와 이행기 정의의 미결성

“한국의 사회 운동사에서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하여 1990년대 초반의 시기는 1970~80년대 동안 축적된 역량이 총결산된 장이자 운동의 ‘쇠퇴’가 진행된 시기”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 시기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기의 제도적 장치들을 민주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항들이 대표하듯, 이행기 정의¹⁾를 찾기 위한 지난한 여정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했다.²⁾ 광

1) “이행기 정의란 권위주의 통치나 분쟁을 겪은 사회에서 폭력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1980년대의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과 탈사회주의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행기 정의의 핵심인 진실위원회는 약 30년전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도 과거청산운동과 결합되면서 이제는 널리 알려진 일반적 개념이 되었다. 이행기 정의는 제도화의 경로나 유형이 서로 다른데, 그중의 하나가 ‘위로부터의 정의’이고 다른 하나가 ‘아래로부터의 정의’이다. ‘위로부터의 정의’가 국제 전범재판과 같은 처벌 중심의 제도라면, ‘아래로부터의 정의’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의 사회운동에서 출발하여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실위원회가 설립되는 경로를 밟는다. 이것은 사회운동과 정치, 법의 영역을 가로지르고 있다.”(정근식, 「

장의 열기가 소멸되어가는 과정의 한켠에, 폭력적 과거사를 겪은 지역에서는 은폐되었던 진실을 복원하고 공개적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아래로부터 조직적으로 추동되고 있었다.³⁾ 이는 1980년대 말 국회의 5·18 광주 청문회를 기점으로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그리고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⁴⁾를 재고하는 시도로 나타났으며, 이후 제주 4·3과 거창, 노근리 학살 등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과 특별법 제정 등을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행기 정의의 구성적 측면을 보여준다. 특히 그것은 한국사회가 구성적 타자로 규정한 ‘빨갱이’들을 무차별 학살했던 과거사와, 이를 가능케 했던 분단체제 하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재성까지를 재인식해보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제주 4·3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현대사 재조명·재인식의 기운을 타고 공산폭동론의 대항담론으로 ‘민중항쟁론’이 대두하였고, 대학살의 실상과 그

이행기 정의와 구술사, 『구술사연구』 제13권 2호, 한국구술사학회, 2022, 123~124면)

- 2) 박상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민중·민족문화운동의 미디어성과 잊힌 가치들 - 집회의 문화적 형식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3호, 2021, 88~90면.
- 3) 제주사회에서는 6월항쟁을 기점으로 4·3에 관련된 연구소, 논문, 증언집, 자료집, 신문연재물, 추모제(위령제) 등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6월항쟁 이후, 4·3과 관련된 증언집으로 오성찬의 『한라의 통곡소리』(소나무, 1988)과 제주4·3연구소의 『이제사 말했수다』 I, II(한울, 1989) 등이 나왔으며, 자료집으로 노민영(위음)의 『잠들지 않는 남도』(온누리, 1988)와 아라리연구원(위음)의 『제주민중항쟁』 I, II, III(소나무, 1988-89) 등이 출간되었고, 신문연재물로는 「4·3의 증언」(제주신문, 1989년과 4월 3일~12월 5일(연재 중단))과 「4·3은 말한다」(제민일보, 1990년 6월 2일~1999년 8월 28일) 등이 있다. 아울러 고창훈의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1989), 박명림의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1988), 양한권의 「제주도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1988) 등 관련 학술논문도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제주4·3연구소’가 설립돼 1989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62~63면 참조)
- 4) 최정기,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4권 2호, 한국지역사회학회, 2006, 7면.

책임소재의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민주화운동의 진전과 더불어 고조되어 갔다.⁵⁾ 이 시기 속출한 각종 문화예술운동, 학술연구, 증언채록, 기념사업 등은 2000년대 이후 4·3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그에 이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로 이어지며 4·3에 대한 새로운 공공기억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최근 4·3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대부분의 이행기 정의 실현 과정은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희생자’로 승인된 이른바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완결”⁶⁾되고 있어 문제를 지닌다. 새로운 4·3의 공공기억은 민주화 이행기에 부상했던 민주항쟁론의 관점보다는 ‘미증유의 대량학살’에 중점을 둔 국가폭력범죄론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폭력론마저도, ‘희생자 애도를 넘어 국가테러리즘과 냉전구조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방향’⁷⁾이었던 당초 취지가 법·제도화 이후에는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프레임으로 전환되면서, 정작 폭력을 초래한 냉전·분단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이나 가해자 책임규명·처벌 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는 형국이다.⁸⁾ 나아가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과 같은 보

5) 김영범,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공저,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27면, 38면.

6) 김소영, 「4·3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문학적 재현의 새로운 모색: 민주화 이행기 4·3소설에 나타난 항쟁 담론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96집, 2024, 622면.

7) 김영범, 앞의 글, 39면.

8) “최소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후반까지는 한국사회 안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그들의 반성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의지와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국가폭력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사회와 정치의 중요한 세력으로 남아있던 정치적 현실 속에서 달성될 수 없었다. 한국사회의 이행기 정의는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처럼 책임자들에게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의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화해모델’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이행기 정의 제2국면에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꼽혔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영향을 받은 전략이었다.”(김요섭, 「이행기 정의와 서사: 민주화 이후 문예지 복간과 재현의 정치」, 『상허학보』 제64집, 상허학회, 2022, 414면)

편적 인명이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과 위로부터의 법·제도화를 아우르며 정당성을 획득”⁹⁾함으로써 4·3의 역사적 평가를 둘러싸고 탈정치, 탈이념화 지향성이 뚜렷해졌다.¹⁰⁾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기억투쟁이 200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법을 통한 과거청산 과정에 포섭되면서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¹¹⁾ 달리 말하면, 이것은 한국사회에서의 이행기 정의 실현이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사회학자 도미야마 이치로는 “제도가 등장하고 질서가 만들어진 후에는 이 역사의 동인(動因)이었던 운동을 일으킬 때의 꿈이나 가능성은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다”¹²⁾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그것은 민주화 이행기에 4·3을 재평가하던 아래로부터의 기억투쟁 과정에도 적용되며, 그러한 기억투쟁에 의해 포착된 4·3 당시의 전개 국면에도 적용되는 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행기에 추동된 진상규명 열기가 한창이던 1991년의 제주사회에서, 제주 작가 한림화¹³⁾가 발표한 국내 최초의

- 9) 김소영, 앞의 글, 625면.
- 10)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한 4·3 정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민들의 4·3 인식은 가치중립적 용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다른 정의(양민학살, 민중항쟁, 폭동, 통일운동 등)들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4·3특별위원회)·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플랜비, 『제주 4·3 정명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23 참조)
- 11) 이소영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법을 통한 과거청산’은 “대항기억의 돌발들을 역사화하여 국민의 기억으로 포획하며, 역사의 외부를 역사의 새로운 내부로 끌어와 정상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전략과 국가화 전략을 은밀하게 숨긴다는 점에서 “국가가 설정한 정당성 기제 속으로 발을 들여놓음과 동시에 국가가 승인 권리를 장악한 승인규범에 대한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이소영, 「기억의 정치와 ‘법을 통한 과거청산’ 담론 비판」, 『외법논집』 제35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80면 참조)
- 12) 도미야마 이치로,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오키나와 전후사(戰後史)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217면.
- 13) 1950년생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으로 1987년에 발표한 중편소설 『매고일지』 이후 본격적으로 4·3을 소설화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매고일지』(1987), 『한라산의 노을』(1991), 『꽃 한송이 숨겨놓고』(1993), 『철학자 루씨, 삼백만 년 동안의 비밀』(2001), 『아름다운 기억』(2014), 『The Islander: 바람섬이 전하는 이야기』(2020), 『동아지중해의 노마드』(2023) 등이 있다.

4·3 소재 장편소설 『한라산의 노을』¹⁴⁾은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들여다 볼 가치가 있다. 이 시기 많은 이들에 의해 주창되었던 민중항쟁론은 오늘날 역사화된 4·3의 기억이 간과하는 어떤 꿈이나 가능성에 주목하였는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작가 한림화는 ‘민중항쟁’으로 호명된 4·3 당시의 기억에서 간과된 어떤 꿈이나 가능성에 주목하였는가. 다시 말해 이 글은, 민주화 이행기에 제주의 여성 작가가 시도했던 아래로부터의 기억 투쟁 전략이 오늘날과 당대에 4·3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에서 놓치고 있는 측면을 짚어내는 어떤 것이었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한라산의 노을』은 “4·3을 종합화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모색”의 일환으로서 “1990년대 들어서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4·3소설의 장편화 경향”¹⁵⁾의 첫 시작에 놓인 작품이다. 한림화가 10여 년에 걸친 취재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 소설은 1947년 ‘3·1사건’에서부터 1949년 6월 초 봉기 지도자인 ‘이덕구’가 죽는 시점까지를 일지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과 실제적 진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¹⁶⁾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작가는 이를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의적으로 왜곡, 은폐되어온 4·3의 “쓰이지 못한 역사”에 대한 일종의 “정사(正史)”¹⁷⁾ 쓰기 시도에 따른 전략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 『한라산의 노을』은 실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오류들이 다수 있고 작가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소설 안에 투입하는 등의 문제로 ‘정사’ 서술로서의 의미를 갖기에는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¹⁸⁾

14)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1·2·3, 한길사, 1991. ;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장천, 2016.

한길사에서 전 3권으로 출간되었던 이 소설은 25년 만인 2016년에 제주도 지역출판사인 장천에서 내용상 큰 변형 없이 단권으로 재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장천판을 택하여 텍스트로 삼는다.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는 각주 대신 괄호 뒤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15)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69면.

16) 김종민, 「해설: 4·3진상규명을 향한 여정」,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장천, 2016, 682면.

17) 한림화, 「초판 작가의 말: ‘4·3’에 가워늘린 40년의 세월」, 위의 책, 693면.

오히려 사태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서술자 곧 저자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깊게 개입한다는 점은 작품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작가가 어떤 서술전략을 사용해 독자를 움직이려 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필 여지를 남긴다. 홍기돈¹⁹⁾, 한경희²⁰⁾의 연구는 제주 민중을 항쟁 주체로 부각하는 관

18) 김동윤은 이 소설을 평가하면서, “해주대회 참석차 섬을 빠져나간 김달삼에 비해 제주도에도 남아 끝까지 싸우다 최후를 맞은 이덕구를 영웅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끄는 반면, “이덕구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리얼리티의 문제라든가, 작중인물들의 성격이나 행동 등이 생명력 있게 작용하지 못함으로써 소설 전체가 긴장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등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동윤, 앞의 글, 69면 참조)

이에 더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치명적인 오류들이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정사 쓰기를 목적으로 한 당초 창작 의도를 고려할 때 작지 않은 결함임은 분명하다. 그러한 실증적 오류들로 1947년 3·1사건 당시 관덕정에서의 발포 장면이 기관총 발포가 이뤄졌다고 묘사된 부분(기관총 장작은 관덕정 일대가 아닌 복신작로 쪽이었으며 그곳에서 총격이 벌어지지는 않았음), 이덕구가 관동군 대좌 출신으로 묘사된 점(실제로는 학병으로 1943년에 일본 육군에 입대했다가 해방과 함께 소위로 제대했음), 남원읍 태흥리의 위치를 남원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서술한 부분(실제로는 남원의 동쪽에 위치), 남로당 제주도당 남원면당을 역임한 김계원이 체포된 시점이 48년으로 그려진 점(실제로는 49년 5월) 등을 꼽을 수 있다.(김동윤, 「상상력, 혹은 그 이전의 문제 - 제주 소재 소설의 결가지 읽기」, 『섬의 문학』 창간호,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 1995 참조)

19) 홍기돈 역시 작가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소설 안에 투입해오거나 지나치게 사료 제시에 충실해 실증성이 문학성을 압도한 측면을 소설의 한계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진상규명을 향한 한립화의 작가의식은 군사정권 시절 장편소설이 끌어안았던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상기시킨다며 그 의의를 강조했다. 더하여, 그는 공동체 풍속의 재현, 자치제 전통의 복원 등을 강조함으로써 4·3 전사를 제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시도에 주목했다. 특히 무장대 내부에서 남로당의 이념과 제주인의 정체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포착, ‘토벌대·남로당과 길항하는 공동체의 사상과 문화’를 서사화하고 있다고 보았다.(홍기돈, 「토벌대·남로당과 길항하는 공동체의 사상과 문화 - 장편소설로서 『한라산의 노을』의 의의를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제26호, 춘원연구학회, 2023 참조)

20) 한경희의 연구는 소설이 ‘김달삼과 ‘이덕구’의 대립 구도를 강조함으로써 제주 민중과 남로당 사이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이분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립화가 제주 민중의 자치주의적 지향이 이데올로기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처럼 ‘지역’과 ‘민중’이 강조된 자치주의적 지향의 부각은 해방기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항쟁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략한 제주 민중들을 주체의 위치로 격상시키고 민중항쟁 담론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고 보았다.(한경희, 「제주 민중에게 제주 4·3은 무엇이었는가 - 민주화 이행기 제주 4·3이 민중항쟁으로 재현되는 과정과 방식」, 『우리문학

점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분석하고 의의를 규명했다. 특히 ‘이덕구’(제주 민중) 대 ‘김달삼’(남로당)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봉기 지도자였던 이덕구의 민중성을 부각하는 서술전략에 주목했다. 한편, 홍기돈은 『한라산의 노을』에 나타난 여성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적 시각이 좌우 극단으로 양분된 ‘1948년 체제’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았는데, 4·3 문학장에 여성 작가의 목소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주장은 더 확장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글은 작중 여성 인물들, 또는 ‘무지렁이’라 표현되는 기층민적 민중들이야말로 작중에서 발화 주체로서 유의미하게 역할하고 있다고 본다.

리얼리즘적 역사소설의 형식을 취한 이 소설은 1980년대 민족·민중운동의 핵심 저항 주체로 등장한 기층민중의 개념을 4·3의 문학적 재현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당대 문학장과 맞닿는다. 이때 작가가 4·3 전사(前史)²¹⁾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전략은 제주 민중들과 여성들의 복수적 행위를 복원하는 과정과 연동된다. 소설은 4월 3일의 봉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순간들에서 ‘민중’이 출현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버틀러·아타나시오우의 박탈, 수행성 개념을 경유하여 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1980년대 말 이후 4·3을 민중항쟁으로 재평가한 제주사회 기억투쟁의 한 방식이자, ‘페미니스트 작가’로 잘 알려진 한림화 특유의 여성주의적 관점이 4·3 민중항쟁론에 투영된 데 따른 것임을 밝혀 보이고자 한다.²²⁾ 이는 1980년대 이후의 여성해방문학 계보에서도 의

연구』 제79집, 우리문화회, 2023 참조)

21) 2000년에 공포된 4·3특별법의 규정은 ‘4·3’을 정의할 때 그 시점을 1947년 3·1발포사건부터 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출간된 1991년은 아직 3·1사건이 4·3의 기점으로 규정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4·3’의 전사(前史)를 말한다는 것은 날짜 그대로의 4월 3일 무장봉기 발발 이전으로, 3·1사건 역시 그러한 ‘4·3’의 전사(前事) 중 하나로 얘기하려고 한다. 즉 3·1사건을 비롯한 그 이전 시기의 여러 운동이나 투쟁 등을 포괄하여 4·3 전사(前史)라고 말할 것이다.

22) 한림화는 20여 년 전 ‘자발적 미혼모’를 선언하며 제주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여성운동가로도 잘 알려진 페미니스트 작가이다.(김남희, “제주의 소설가 한림화씨 “생의 끝까지 작가로서 충

미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²³⁾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화 이행기에 아래로부터의 이행기 정의 실현을 추동하는 작가 자신의 수행적 실천과도 장기적으로 맞닿는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이행기 정의 실현의 문제를 재인식하는 또 다른 관점을 제안해보려고 한다.

2. 민주화 이행기의 민중 담론과 4·3 민중항쟁론

주지하듯 1970년대부터 사용되어오고 있던 ‘민중’ 개념이 사회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다. 김득중에 따르면 “민중은 광주항쟁 해석에서 등장한 독창적 개념”이었으며, 1987년 6월항쟁 후 민중 개념은 광주항쟁에서 최후까지 항쟁했던 기층민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른 민중론은 민주화운동의 주체이자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계층으로 민중을 정의했으며,²⁴⁾ 문학장에

실하고 싶어요””, 여성신문, 2011.11.11. 참조)

한림화는 『한라산의 노을』 집필 전 자료수집 과정을 회고하며 “198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를 휩쓸던 ‘민주화시기 전후였다고 기억한다. ‘이제는 여성이 말하게 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인권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회의 등 공개된 모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대한 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작품 구상 시점부터 여성해방운동에서 주창해온 여성인권, 여성의 발화권 등을 깊이 염두에 두고 4·3 때의 여성 재현 문제를 고민해왔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한림화, 『제주4·3사건』 진행 시 제주여성사회의 수난과 극복 사례 - 출처 『한라산의 노을』 집필 전 자료수집 노트를 펼쳐보니),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역사의 상처, 문학의 치유: 제주4·3항쟁 70주년 전국문학인 제주대회 4·3문학 세미나』 자료집, 2018, 10면 참조)

23) 이 소설은 1991년에 출간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여성 문학장이 민족·민중의 거대서사로부터 하위위계화된 여성을 재인식하고 정체성 정치, 탈정치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감안한다면, 역사소설을 통해 여성주의적 민중관을 주창한 한림화의 소설은 당대 여성 문학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장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서는 민중문학론이 1970년대의 민족문학론의 실천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했다.²⁵⁾ 그러나 이 소설이 출간된 1991년은 국내적으로는 5월 투쟁의 실패, 국외적으로는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민중주의의 급진적 상상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기점이었다.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문학사는 내면으로의 천착과 대중소비사회의 문화와 풍경을 향한 시선이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²⁶⁾ 그러므로 한국의 문학사 흐름에서 볼 때 이 소설은 1990년대 이후 퇴조하기 시작한 리얼리즘적, 민족·민중적 거대서사의 마지막 국면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폭력적 과거사의 청산과 진실 찾기가 긴요한 과제로 부각된 제주사회의 문학장 안에서는 여전히 과거사가 핵심적인 창작의 소재였고, 과거사를 민족·민중주의적 시각에서 전유하는 전략이 1990년대 이후로 더 활성화되어갔기에 중심부 문학장과는 구별되는 흐름을 형성했다.

이런 점에서 민중항쟁론에 입각한 4·3 재현 방식은 1980년대 민중 담론을 수용하면서도 민중문학의 계보와는 흐름을 달리한다. 80년대 민중문학 특유의, 현실 주체들이 이념적 자기 각성을 통해 사회 변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4·3 당시 기층민들이 저항 주체로 역할하는 과정을 강조하며 실천운동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한리산의 노을』은 기층민들이 ‘박탈’의 이중적 속성으로부터 행위성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민중’으로 출현하는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타나시오우는 “박탈”이 “근간을 잃어버리고, 짐령당하고, 가정과 사회적 유대가 파괴되는 경험, 그리고 “진짜” 자기-정체를 밝히려는 선동하는 신원 확인의 관례, 인도주의적 희생자화, 삶의 위태로움 (unlivability), 그리고 민족자결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경험들을 표현할

24) 김득중, 「1980년대 민중의 발견과 민중사학의 성과와 한계」, 『내일을 여는 역사』 2006년 여름호(제24호), 재단법인 역사와 책임, 2006, 54-55면.

25)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945-2010』, 민음사, 2020, 500-501면.

26) 김요섭, 앞의 글, 13-14면.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해준다”²⁷⁾고 말한다. 당시 제주 민중들은 탈식민 해방의 좌절과 정치적 난민화, 반공주의와 경찰권력의 전방위적 생활 통제, ‘빨갱이’로의 타자화, 공동체 파괴 등 각종 탈취적 형태의 박탈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박탈은, 역설적이게도 것처럼 “우리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순간에 “육체로 체현된 행위성의 물질성과 감응성을 사유”할 수 있게 하고, 타자화된 주체 간의 “개별적 육체들이 갖는 관계성”을 토대로 “복수적 수행성의 정치적 감응”이 이뤄지는 경험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그럴 때 복수의 수행적 존재들로서의 제주 민중들은 더 이상 자기 보존과 자족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육체가 맞닿는 타자들과의 감응을 매개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것”으로 요구할 권리를 위해 투쟁”²⁸⁾하게 된다. 버틀러는 이를 아렌트의 이론을 경유하여 “국가 없는 이들마저도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는 수행적 실천”이 “언어나 신체를 매개로 한 운동, 집회, 행동, 저항을 통해” 실행되는 순간들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운동의 순간들은, 권리 없는 자들이 서로 간 육체적 감응을 매개로 권리 있음을 언어와 몸짓으로 선언하는 복수적 수행성의 공존과 연대로부터 진정한 정치적 행위를 경험하게 한 장소였다. 『한라산의 노을』이 포착한 민중항쟁으로서의 4·3은 이처럼 평범한 민중들이 ‘운동’을 통해 “단결적 집단행동의 일원”²⁹⁾이 되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의 문학장에서 민족·민중 담론을 전유하는 방식과 4·3을 ‘민중항쟁’으로 의미화하는 목소리들은 단일한 내러티브로만 구성되지 않는 복잡성이 있었다. 한림화의 이 소설의 경우, ‘사회주의’ 지도부(+남로당, 무장대)와 ‘섬사람’들을 분리하는 가운데 외부에 대한 지역의

27)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김용산 옮김, 자음과모음, 2016, 34면.

28) 위의 책, 286~289면.

29) 주디스 버틀러,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용산·양효실 옮김, 창비, 2020, 72~73면.

자구적 저항으로 4·3을 계보화하는³⁰⁾ 4·3 민중항쟁론의 한 담론 전략을 공유했다. 그것은 ‘빨갱이’ 논리를 타파하기보단 제주 민중을 빨갱이로 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일종의 ‘부인’ 전략과 친연성을 갖는 측면이 있다. 이는 오랫동안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려온 제주 사람들의 특수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바, 빨갱이 오명은 피하면서도 항쟁론을 긍정하고자 했던 많은 제주 문인들이 취한 서술전략이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은 적극적으로 반미·반제를 외치며 민족통일과 민중해방을 주창하는 가운데 (남로당과 같은) 반체제론자들까지 항쟁 주체로 인식한 소위 운동권 노선과는 미묘하게 다른 결을 보여준다. ‘단독정부 수립 반대’, ‘탄압이면 항쟁이다’ 등의 당시 슬로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이를 ‘섬’에 대한 ‘육지’의 유구한 핍박에 따른 로컬리티적 응전의 입장에서 발화함으로써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의 논리에는 회수되지 못하는 자치의 전통이나 관습에서 비롯되는 고유의 생존 전략”³¹⁾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림화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민중항쟁으로서의 4·3을 강변했다. 물론, ‘무장대’의 보복 살상을 일지 식으로 자세하게 서술한 4월 3일의 경과 묘사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 그는 토벌대와 무장대의 폭력성에 대해 동일한 층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³²⁾ 이런 점에서 소설은 4·3의 전개 국면에서 점차 폭력과 이념의 논리가 해방의 논리를 압도하

30) “과거 독립된 단위로서 자율성을 추구하던 섬 공동체에 가해진 외부로부터의 압박”에서 비롯한 저항(자기 방위적 차원의 민중항쟁)으로 4·3을 이해하는 입장은 오랜 세월 ‘변방’으로 취급되어온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그에 따른 자치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의 구도와는 구분되는 범주로 4·3을 재위치시키고자 했다. 박찬식은 “남로당의 사회주의 이념은 섬사람들을 조직화시킨 사상적 외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220면 참조)

31) 문경수, 「재일 제주인의 시각에서 본 제주4·3」, 고성만 엮음, 『비판적 4·3 연구』, 한그루, 2023, 76-77면.

32) 이처럼 “폭력적 충돌과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4·3을 해석한 글로는 김상봉, 「폭력과 윤리 - 4·3을 생각함」, 『인문학연구』 제32집,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 4·3의 담론정치」,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88 등 참조.

기 시작했음을 비판하면서도, 4·3의 전사, 특히 3·1사건이 “제주민이 무장봉기할 수밖에 없다는 타당성을 인지하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했음을 강조하며 민중항쟁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작가의 말에서 한림화는 “주체세력과 주도자들을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힌다. “독립투쟁을 하자고 나선 주체세력은 제주섬 무지렁이들”이었으며, “여기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헤게모니를 쥐려는 남로당이 끼어들어 상당부분 주도했다”³³⁾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항쟁 주체로 나선 입산자들에게서 남로당계/지식인 남성 중심의 정체성을 탈각시키고 민중성을 강화하는 서술전략으로 나타난다.³⁴⁾ 한림화는 잠수(해녀) 출신 ‘김순덕’, ‘정삼봉이 각시’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 그리고 나이 지긋한 어른이나 덜 배운 남성들이라 할 수 있는 작중 ‘불미대장’, ‘돌통이’, ‘양생돌’ 등에서 발화되는 ‘인민평등’, ‘통일독립’, ‘완전독립’ 등의 기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되었듯, 김달삼에 이어 2대 무장대 지휘 총책을 맡은 이덕구를 남로당의 교조성을 거부하는 “제주 사람”(545면)으로 그려내는 묘사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³⁵⁾

33) 한림화, 「초판 작가의 말: '4·3'에 가위눌린 40년의 세월」, 앞의 책, 697-698면.

34) 작중 태우리 출신 ‘양생돌’과 전라남도에서 파견된 ‘남도오르그’의 갈등 묘사가 대표적이다. 사상에는 관심 없던 ‘무지렁이’로 묘사된 양생돌을 두고, 남도오르그는 그가 ‘미신’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한심히당께”(391면)라고 비웃는가 하면 자기 말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죽걸쳐분혀서 본보기로 삼아야 쓰겠다”(392면)다고까지 말한다. 중앙당오르그 역시, 4·3봉기가 자신들의 허가도 없이 일어나자 “이 섬것들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저들끼리 판을 벌여?”(393면)라며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남북 양쪽에서 찬밥 신세가 된 남로당의 “현재의 처신을 불만스러워하”(394면)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를 보는 제주 민중의 시선은 “사실 인민대중은 핵에 접근하는 발판에 불과”한 것이 아닐지, “권력의 핵에서 정말로 인민대중을 깊이 생각할까 하고 의구심”(395면)을 갖게 된다.

35) 한경희와 홍기돈에서도 지적되었듯, 한림화는 교조주의적 성향의 ‘남로당원’ 김달삼을 저평가하면서, “도당 군사총책의 지위” 대신 “제주 인민유격대 총사령관”(545면)의 직책을 위한 이덕구를 상대적으로 고평가한다. 특히 김달삼을 ‘제주인’ 대신 ‘남로당원’이 되길 택해 제주를 배신하고 해주로 올라간 것으로, 그와 달리 이덕구는 ‘남로당원’ 대신 ‘제주인’이 되길 택해 끝까지 제주에 남아 항전한 ‘장두’로 영웅화한다. 이것은 작가에 의한 허구로, 실제 이덕구의 직책은 인민유격대 사령관이었고, 남로당 내에서는 제주도당 군사부장이었다. 아울러 김달삼

우리가 내준 거. 그것만 따진다면 제주 사름은 얻은 게 없어 보이지. 그게 아니야. 후세에 이걸 남겼지 않나. 불의를 보면 와 일어서는 곳곳한 정신을.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얻는 정신 말이야.

역사적으로 봐도 제주 사름덜이 승산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여러 번 일어섰다가 사그라들고 말았지. 제주 사름 하나하나가 불 일어나듯, 일어설 대목에는 지체 없이 일어난다. 이게 대물린 큰 유산이야. (91면)

작중인물 김순덕의 위와 같은 발언은 4·3을 제주의 오랜 역사성이 배태한 저항의식의 계승으로 의미 부여한다. 1901년의 제주신축항쟁 이래(더 멀게는 근대 이전기의 삼별초 항쟁과 목호의 난 등 이래) 4·3 국면의 현재까지를 “불의를 보면 와 일어서”왔던 제주 역사로 계보화하는 이러한 인식은 민주화 이행기에 제주사회가 이행기 정의의 실현을 모색하던 한 방식을 보여준다. 물론 소설은 민중항쟁으로서의 4·3을 이처럼 로컬의 단위로만 사유하지 않는다. “자립적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저항운동”일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조국통일운동과 맥이 닿는 반외세 항쟁”³⁶⁾으로도 보는데, 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주섬만의 독립·해방을 추구한 게 아니라, 전 국토가 전 민족이 그러하길 바랐던 마음”³⁷⁾을 당대 제주 민중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작가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반체제론자들을 긍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한반도 민족주의로 무장한 민중성의

이 제주를 배신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도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김달삼 등은 ‘지하선거’를 통해 인민들의 서명을 받은 연판장을 들고 8월에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 참석차 해주로 떠났으며 초토화작전이 본격화된 것은 11월 이후부터이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236~239면 참조)

이와 같이 “남로당의 방침을 비판하는 제주도 당원들을 민족주의자로 제시”하며 특히 그러한 “현실 인식이 ‘섬사람들’을 단위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한림화의 전략은 사회주의 이념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것을 전유한 남로당의 교조성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제주 민중의 자치주의적 지향”이 그러한 “이데올로기와 분명히 구분되는” 또 다른 층위에 놓여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홍기돈, 앞의 글, 425면, 한경희, 앞의 글, 516면 참조)

36) 김영범, 앞의 글, 39면.

37) 한림화, 앞의 글, 695면.

강화는 ‘빨갱이’로 낙인찍힌 제주 민중들을 좌우의 이념 틀을 초과하는 자리에서 한국사회의 민족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게 한다. 항쟁에 가담했던 제주도민을 ‘빨갱이’라는 피박탈자에서 ‘민족·민중’이라는 권리 주체로 재호명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기억투쟁에 참여한 작가의 수행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남한 전역에서 미군정의 우경화정책에 맞서 일어난 민중항쟁의 마지막 국면”³⁸⁾으로 4·3의 의미 지평을 넓힐 여지를 준다.

이처럼 1980년대 후반부터 폭력적 과거사를 복원하고 재현하는 기억투쟁의 과정에서 한림화를 비롯한 몇몇 제주 문인들이 4·3을 민중항쟁으로 의미화한 시도는 당대 한국 문학장의 구조와 연동되면서도 그것과는 변별되는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민주화 이행을 지나 중심부 문학권에서 빠르게 퇴조하기 시작한 민족·민중 담론을 전유하여 4·3을 문학화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이행기 정의의 문제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내적·제도적 층위를 넘어 미국 주도의 제국질서와 맞물린 분단·반공체제의 현재성에까지 닿아 있는 문제임을 근본적으로 직시하게 한다.

3. 식민주의적 박탈의 재인식, 기층민중의 정동과 수행적 실천

『한라산의 노을』은 미국과 이승만 세력에 의해 건설된 반공 정권의 제국주의적 경찰폭력이 해방공간에 고스란히 반복된 현상을 꼬집는 가운데 4·3 전사(前史)를 써내려간다.³⁹⁾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해방 이전에도

38) 이재승, 「제주4·3항쟁론과 자결권」, 『일감법학』 제49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333면.

39) 여기에는 『한라산의 노을』 출간 전후로 제주사회에서 선풍적인 관심 속에 연재되고 있던 신 문연재물 〈4·3은 말한다〉에서 밝혀진 역사적 ‘진실’들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그러했듯, 해방 이후에도 일상의 전 영역에 폭력적 경찰권력이 전방위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 민중들로 하여금 “주체성과 생존, 삶의 가능성을 한정 짓는 규범적이고도 정상화를 유도하는 폭력에 의해 고통스럽게 강제된 어떤 상태”⁴⁰⁾로서 ‘박탈’의 지속을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소설은 4·3 발발의 경위를 서술함에 있어 복시환 사건, 3·1절 발표사건, 초천중학원 출신 김용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중요한 계기로 배치하고 있다. 1946년 1월에 벌어진 복시환 사건⁴¹⁾을 두고 제주 출신 경찰인 ‘박운휴’가 이 사건의 내막을 캐던 중 서울에서 온 신우균 감찰청장과 미군정청 스타우트 등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이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파문이 일어난다. 이미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한 미곡수집정책을 두고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가운데, 밀무역을 둘러싸고 모리배와 결탁한 단속기관의 뒷거래까지 횡행하자 도민사회 전반에 미군정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조성⁴²⁾된 상황이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감

추정된다. 그러한 영향은 1946년 복시환 사건, 1947년 3·1사건 등 4·3 전사(前事)의 발발 원인이나 전개 과정,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의 과도한 횡포, 여기에서의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책임 등을 부각하는 소설의 관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한림화는 본격적인 소설 창작에 임하기 이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해녀, 굿, 신당 전문가로 주로 알려져 있었으며 제주 소설가 오성찬과 함께 제주의 마을을 다니며 〈제주의 마을〉(1985~2002) 시리즈를 펴내기도 하는 등 독자적으로 제주의 문화, 역사를 탐색하는 데 오랫동안 전력해왔다. 4·3연구소나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등 조직체 단위의 증언 채록 활동이 있기 전까지는 문인이나 연구자들에 의한 개인적인 취재가 주로 이뤄졌다. 그는 1980년 초 시점에 약 10년의 조사기간 동안 제주의 마을들을 거의 전부 방문하여 “마을공동체 자료 조사, ‘전통의례 자료조사’ 등을 전면에 내세운” 체로 “제주섬사람에게 집단기억으로 내재된 4·3사건”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고 술회한다.(한림화, 『제주4·3사건’ 진행 시 제주여성사회의 수난과 극복 사례 - 줄져 『한라산의 노을』 집필 전 자료수집 노트를 펼쳐보니, 앞의 자료집, 17~18면 참조)

40)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앞의 책, 20면.

41) 1946년 1월 서귀포 법환리 출신 재일 동포들이 고향 마을에 전기를 가설하기 위해 복시환이라는 선박에 기증한 자재를 싣고 오던 중 경찰 당국에 의해 밀수선으로 적발된 사건을 말한다.

42)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 4·3항쟁의 배경 - 제주도 인민위원회,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88, 57~58면.

찰청장 신우균은 좌천되지만, 문제는 그가 “제주섬은 빨갱이가 득실거리고 경찰도 믿을 수 없다고 떠벌”리고 다닌 끝에 제주섬에 대한 중앙권력의 반감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조병옥 경무부장은 제주경찰 감찰청이나 경찰서에다는 일언반구도 없이 무조건 충청남·북도에서 응원경찰을 모집하여 내려보냈”(36면)고, 소설은 이를 3·1절 발포사건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⁴³⁾

국가경찰과 법의 폭력은 투쟁, 전쟁, 범죄 등의 폭력과는 다른, “포획하고 장악하는 동시에 포획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하는 폭력” 즉 “모든 종류의 직접적 폭력과 대립”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정위된다.⁴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부를 향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의 대상 자체를 결정하는 ‘경찰적 폭력’이 함께 작용한다.⁴⁵⁾ 해방 이후 한반도 이남을 관할하게 된 미군정은 1947년 이후 냉전체제의 본격화에 따라 전후 효율적인 점령지 관리와 동아시아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친일 경찰과 관료를 재등용하고 경찰력을 강화하는 등의 우경화 정책을 펼쳤다. 이는 “탈식민지 민주국가 건설이라는 전후의 과제가 지구적 ‘반혁명’ 이데올로기인 반공에 압도된 것을 의미”⁴⁶⁾한다. 제주의 경우, 도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형

43)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된 1947년의 응원경찰 파견은 관례를 깨고 사태 발발 이전에 보내졌다는 특이성이 있다. 경찰 자료에는 “군정당국은 중앙에 제주도의 불안한 상태를 보고하여 특별대책을 세워주도록 한 결과 1백여 명의 경찰응원대가 도착하였고 연이어 서북청년단이 입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찰업무를 담당했던 한 경찰관 출신은 당시 31절의 집회시위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며, 제주경찰 자체에서 특별히 응원경찰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응원대의 파견 배경에 다른 주장을 했다. 그것은 “복시환 사건으로 해임된 신우균 감찰청장이 서울에 올라가 제주경찰을 불신하는 모략에서 비롯된 감이 있다”는 주장이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보고서, 107면)

44) 질 들뢰즈,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860면. ; 김예림, 「전쟁, 소유, 박탈: 전시 “가옥상실”과 “가옥과괴”의 자리에서」, 『동방학지』 제194호, 동방학지, 2021, 2면에서 재인용.

45) 김예림, 위의 글, 2~3면.

46) 김동춘,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3년 상반기(통권 제23호),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118면.

성되었던 해방기 자치권력⁴⁷⁾이 경찰력을 위시한 구조적 폭력에 의해 압도당하고 폭력의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민중들은 “반공은 곧 총독부의 과시즘적 지배를 거의 이어받은 것”⁴⁸⁾이라 인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1947년 3·1절 기념집회가 제주 민중의 저력을 과시한 ‘운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게 제주도가 다 몰려오리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모르긴 몰라도 인민위원회도 놀랐을 것이다.”(26면)는 구절을 통해 47년의 3·1운동이 모두가 예상치 못한 유례 없는 규모로 나타났다는 점⁴⁹⁾과 함께, 그러한 규모의 집결은 특정 조직체나 이념 집단의 주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부각한다.⁵⁰⁾ 그것은 겨우 해방을 맞은 상황에서 “난데없이 나라를 둘로 쪼개어 이쪽은 미국이, 저쪽은 소

47) “제주도는 아직 일본군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은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조직 경험과 방법을 토대로 자치적인 치안조직 및 행정·경제조직의 결성에 착수하였다.”, “좌익세력이 벌인 항일운동의 조직적 경험은 8·15 후 건준과 인민위가 신속하게 결성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중략) 제주도 좌익세력은 계급운동을 벌여나가 기보다는 인민위원회라는 통일전선적 대중조직을 통해서 자주적 국가수립이라는 당면과제를 이룩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제주도 좌익세력의 운동 노선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항일운동 경력과 함께 이들의 활동이 제주도민의 지지를 받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양정심, 앞의 글, 54면, 66면)

48) 김동춘, 앞의 글, 118면.

49)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제28주년 31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린던 제주북국민학교 주변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의 군중 수는 대략 2만 5천~3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날 10개 면에서도 별도의 기념식이 열렸는데 각 지방마다 수천 명씩 모였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앞의 보고서, 107면)

한편, 이때의 경찰 발포를 계기로 1947년 3월 10일부터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310 만관 합동 총파업이 벌어졌다는 것이 작품에서 별달리 부각되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50) 물론 당시 ‘31투쟁기념행사’의 준비과정 전체가 남로당 제주도위원장이자 제주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 공동대표였던 안세훈을 주축으로 당조직 차원에서 매우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소설은 안세훈이 “자신은 민족주의자이지, 행정가도 정치가도 아니라고 소신을 밝혔다”든지,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세력권에 든 모든 이가 그의 휘하에 모여들었고, 그 밑에는 남로당 전남도당부 제주도위원회도 들어가 있었다. 가장 나중이긴 하지만.”(195~196면) 등의 구절을 통해 의도적으로 남로당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한경희, 앞의 글, 511~512면 참조.

련이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소문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섬을 떠났던 이들이나 유학 갔던 젊은이들이 돌아와 역설"하자, "겨우 일본 손아귀에서 벗어났는데, 뭐, 노랑내 나는 서양 것들한테 잡혀서?"(21면)라는 분노감에 촉발된 사건이다. 작가의 말에서 한림화는 "현지 인터뷰를 해보니 마치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일'과 이날이 한날인 것처럼 증언하는 이가 가끔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도 독립국가가 아니며 해방되지 않았다는 걸 눈으로 보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⁵¹⁾이라 분석하고 있다. '민중'이라는 평범한 주체들이 식민주의의 폭력에 저항해 '해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1947년 3·1운동은 이러한 1919년 3·1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하고 있다.⁵²⁾ 이처럼 작가는 1919년의 3·1운동과 1947년의 3·1운동을 묶어 역사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제주 4·3의 역사를 한반도 탈식민 해방운동의 계보 속에 위치시켜 그 위상을 재정립한다.

한편, 3·1절 기념집회에서 발생한 발포사건은 제주사회에서 경찰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최초로 자행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전도적 파장을 일으킨다. 당시 기념집회에 참가했던 새마을(실제 지명 조천리)의 청년들은 "우린 싸우지 않았수다게. 기념식에 모였던 사름덜에 경찰이 총질 해연마썸. 막 죽었수다. 모르쿠다, 몇 사람이나 죽었는지. 우린 맨주먹이 난 싸와보지도 못해영 도망쳤수다게."라며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는데, 이를 들던 마을 사람들은 "해방이 됐다는 우리 땅에서 우리 사람끼리 총을 쏘대고 맞아 죽고 하면서 썸질을 했단 말인가. 왜?"(22면)라며 의구심을 표출한다. 탈식민을 맞아야 할 해방공간이 다시금 식민주의에 잠식된 상

51) 한림화, 앞의 글, 696면.

52) "3·1만세운동이 세계사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영웅적인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지도된 운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평범한 민중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규율하면서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만천하에 공포한 민중 운동이었다는 점에 있다."(양현혜, 「3·1운동과 역사창조의 밀알」, 『기독교사상』 제687호, 대한기독교서회, 2016, 245면)

황을 목도한 이들은 경찰권력의 작동과 식민주의 재도래 사이의 연관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가령, 소설은 1948년 3월 새마을의 유망받는 청년이었던 ‘함중민’(실제 인물 김용철)이 경찰에 의해 고문치사당한 사건을 무장봉기 발발의 결정적인 기폭제로 묘사한다.

① 들것을 들고 산길을 걸어 옷한질로 내려서는 동안 누구랄 것 없이 모두의 가슴에 분노가 끓었다.

용마을 어귀를 지나쳐서 새마을로 내리는 길을 탈 무렵 해서 들것의 앞뒤를 걷던 새마을 사람들은 악이 받쳤다. 들것을 치올리고 지축을 흔들면서 뛰었다. 왓사왓사, 왓사왓사.

사람들은 새마을에 닿을 동안 줄창 달렸다. 그들이 지나치는 마을마다에서 젊은 층이 합세했다. (중략) 왓사왓사 완전독립, 왓사왓사 쟁취하자. (68면)

② 넓게는 우리를 다시 강점한 외세와 좁게는 이 섬에 제멋대로 들어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재산, 우리의 태사른 땅, 이 비참한 제주섬을 집어삼키려고 아가릴 벌리고 미친개처럼 설치는 경찰과, 이에 더하여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하는 근본원인은, 완전 독립된 나라를 찾아야 하는 사명에서 비롯된다는 걸 매사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2면)

주지하듯 근대국가 형성의 과정은 폭력의 독점, 정당성을 다투는 세력들의 영토 내에서의 체계적인 배제과정을 의미하며, 동시에 영토내의 인민들에 대한 ‘국민’ 형성의 과정을 의미한다.⁵³⁾ 문제는 그러한 ‘국민’ 형성의 과정에서 생성된 ‘빨갱이’라는 구성적·적대적 타자의 창출이 지역사회, 친족사회 내부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뿐 아니라 그것을 분열하고 해체하는 폭력성을 수반한다는 점이다.⁵⁴⁾ 가령, 공동체 내부의 친밀성에 기반

53) 박명림,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 - 탈냉전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2, 88면.

한 “모듬살이”를 특징으로 하는 제주의 독특한 사회구조”(215면)는 반공국가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뿐 아니라 이념적 잣대로 볼 때 공산주의자들로 오인할 여지를 남긴다.

그런 점에서, ①의 “새마슬 사람이라면 어린이까지, 뉘 집 강아지까지도” 알고 있던 “똑똑한 함중민”(63면)이 ‘사상’을 이유로 죽임당한 사실은 반공국가의 이념 논리와 공동체 내부의 관계성 간의 전면적인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그것은 “모두의 가슴에 분노가 끓게 만들며 그러한 분노는 빠르게 제주섬 전역으로 확산된다. ‘왓사왓사’, 그리고 ‘완전독립’, ‘쟁취하자’로 발화되는 구호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완전독립’을 지시하기 이전에 경찰권력이 내장한 ‘빨갱이’ 사상이 친족사회의 친밀성을 분열하고 해체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제주 민중들의 정동 그 자체를 표상한다. 새마슬중학원 교사 출신인 이덕구에게도 제자였던 함중민의 죽음은 그의 심적 결단을 추동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인용문 ②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무장투쟁을 개시하자고 주장하는 이덕구의 발언이다. ‘외세’와 ‘경찰’의 폭력에 우리들도 폭력으로 응전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당의 이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의 생물학적, 실존적 삶의 박탈을 목도한 제주 민중들의 정동에서 비롯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무장투쟁 발발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탈취적 형태의 박탈을 경험한 제주 민중들에게 투쟁의 결심은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명확하게 자각한 데서 우리나라왔다기보다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 이웃의 죽음을 목격한 데서 우리나라온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함께 겪은 이들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오는 정동은 “우

54) ‘반공국민’ 대 ‘빨갱이’ 간 적대 논리를 근거로 지역공동체가 내부에서 분열, 해체되는 상황은 소설 후반부에 이르러 “피를 본 자위대는 그야말로 눈이 시뻘개져서 자신들과 다른 주의주장을 하는 집을 무차별 습격하고 봤다.”(488면), “‘핵교 선생이에, 빨갱이로 뵈건 어명 아방도 다 찌르랜 했답디다.’”(중략) 이런 일도 다 있구나, 나라 색깔 정하는 마당이 어지간히 무서운 것을. 나라 앞에서는 부모 자식의 도리가 없어도 되는가. 천륜을 어겨도 뵈단 말인가.”(538면) 등의 구절을 통해 포착되고 있다.

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찢어발기며, 우리를 타자에게 묶고, 전송하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우리를 우리 아닌 다른 삶에 연결시킨다⁵⁵⁾. 이 점에서 소설은 이념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이들이 가족과 이웃의 죽음이나 서로 간의 교감을 계기로 ‘민중’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것은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그러한 처지를 공유하는 타자와의 관계성을 매개로 탈주체화되어가는 이중적 박탈의 경험에 의한 것이며,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단결적 집단행동’의 행위성으로서의 민중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령, 함중민의 어머니인 잠수 ‘함씨 각시’는 사상에 전혀 무지한 여인이었다. 함중민의 시신을 보고 난 후 그는 “내 새끼야 종민아, 신학문이 웬수여” 하고 목 놓아 울며 아들 죽음의 원인을 ‘신학문’, ‘중학원’ 탓에 돌렸다. 그러다가, “저마다 집에서 저희들 서방이나 형제들, 친족한테서 들었거나 야학에서 공부한, 새 나라 세우는 문제를 두고 매일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는 동료 잠수들의 시국 토론을 듣기도 하고, “종민이 죽음의 의롭다는 사람들 말”, “새 세상을 세우는 일에 아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거라고 위로해주던 김순덕이”(151면) 등의 말을 들으며 점차 그들과 아들이 공유해온 문제의식에 동조하게 된다. 함중민의 아버지인 보제기(고기잡이) ‘함씨’ 역시 마찬가지다. “종민아, 이 무식한 순불보제기 아방을 도와도라.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키여.” 하고 죽은 아들에게 반문하면서도, “어떤 나라 어떤 사회가 건설되든 관심 없었다. 죽은 아들이 목숨을 걸고 하려 했던 거라면, 그는 무조건 하기로 결정”(141면) 내린다. 그리하여 그는 산사람들의 연락책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들들인 종석이, 종호도 이처럼 사태를 잘 모르면서도 죽은 형을 위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다닌다. 그들은 가족과 친족, 이웃 간의 친밀성을 앞세운 채 함중민의 사상적 유지를 받들어 그가 원하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을

55) 정혜옥, 「주디스 버틀러의 전쟁 비판: 전쟁 프레임에 저항하는 정동적 연대의 가능성」, 『문학과 영상』 제24권 2호, 문학과영상학회, 2023, 528면.

택한다. 그리고 작가는 함씨의 심적 결단 장면 바로 뒤에 틈만 나면 “돌격 인민이여 돌격!”(142면)거리는 남로당원 고창룡의 선동 행위를 배치하고,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부각한다.⁵⁶⁾ 이념보다 이웃의 안위와 공동체주의가 4·3 발발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작가의 인식이 이 대목에서 뚜렷해진다.

한편, 테우리 출신 입산자 ‘양생돌’ 역시 함씨네와 마찬가지로 사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무지렁이로 묘사되었다. 그러다 야학에 다니는 각시를 통해 “평등한 인민나라”(387면)라는 것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테우리도 만세여. 학교 선생도 만세여. 우리 각시 잠수도 만세여.”(389면)라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논리를 갖고 남로당원이 되어 입산한다. 그런 양생돌과 남도·중앙오르그 간의 갈등 묘사는 작가가 양생돌을 위시한 제주 민중들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평등한 나라를 꿈꾸는 민중들의 바람이 일종의 “무정부주의적 순간 내지는 무정부주의적 과정들” 속에서 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탈)식민의 역사적 분기점에서, “이런 막간의 시간은 한데 모인 신체들이 민의를 위한 새로운 시공간을 표현해내는 시간”⁵⁷⁾을 구성해낸다. 식민주의적 박탈이 몸에 체화된 이들이 그러한 상황의 육체적 감응을 매개

56) 고창룡은 후에 산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전향한 뒤 이덕구를 배신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삶에서 체화한 이념 대신 구호로서 이념을 전유한 이가 누구보다 쉽게 전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꼬집는다. 이 점에서, 고창룡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결말부의 내용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관덕정 광장을 지나는 그의 시선에 한복판에 전시된 이덕구의 시신이 비친다. “빨갱이대장 우리 원수, 예. 더럽다”며 침 뱉는 사람들과 함께 고창룡 역시 그를 향해 침을 뱉는데, 그 순간 ‘이덕구 시체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가우똥 기울어’진다. 이때 조롱의 의미로 꽃혔을 법한 왼쪽 윗머미의 “큼직한 낫순가락”(670면)은 침묵하는 신체 위에서 이덕구의 생애가 지향했던 민중 지향성을 증언하는 매개물이 된다. 요컨대 소설은 ‘빨갱이’와 전향자라는 좌우 이념 대립의 구도에서 두 인물을 바라보지 않으며, ‘기울어지는 고개’와 ‘큼직한 낫순가락’으로써 죽은 자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작가가 욕망에 의해 이념 지향적 인물과 민중 지향적 인물의 구도로 그 위계 구도가 전도되고 있다.

57)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11~112면.

로 이뤄내는 연대의 순간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자유와 평등의 형식을 감각으로 외당게 한다. 권리 없는 존재들이 권리 있음을 선언하는 수행적 실천은 바로 이러한 복수 형태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발산된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역사적 이행기의 시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방의 시간을 상상하는 새로운 시간성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수행성은 다음 장에서 보듯 제주 여성공동체에 대한 작가의 상상력에서 더욱 또렷하게 나타난다.

4. 제주 여성들의 저항성, 민중 담론의 확장과 전복의 상상력

이 소설은 탈식민 해방운동의 주체로서 제주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제주사회의 민중성을 여성의 시야에서 포착한다는 점에서 다른 4·3소설들과 비교할 때 독특함이 있다. 일반적으로 4·3의 문화적 재현에서 제주 여성은 “사건 중에는 결백 이미지로, 사건 후에는 상처와 고통의 상징으로 기호화”되며 스토리에서는 주변적 위치에 배치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제주 여성들의 활동이나 경험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체적 인식과정이나 기억의 일정부분마저도 재현되지 못했다”⁵⁸⁾. 한림화는 4·3 때 여성들이 겪은 갖가지 수난을 그들 자신의 입으로 발화하게 하는 한편, 적극적 항쟁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다. 이는 “남성중심적 민중에 여성을 기입하고자 한”⁵⁹⁾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민중론적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제주사회 여성들의 특수성으로부터 민중 담론의 동일성에 수렴되지 않는

58) 권귀숙, 「4·3의 기억과 젠더 이미지: 4·3 영상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4, 266-268면.

59) 이선옥,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 - 젠더, 민족, 민중의 교차」, 『여성문학연구』 제6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 67면.

지점들을 함께 포착하고 있어 주목되는 지점이다.

제주의 여성들은 “매일반으로 물질하라, 발일하라, 집안살림하라”⁶⁰⁾ 하루 온종일 노동하며 개항 이후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주체들이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사회적·정치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남성성이 곧 정상성으로 규범화된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에서 당시 여성은 이중적 형태의 탈취적 박탈에 놓인 존재들이었다. 이때 소설은 “잠수(제주해녀의 옛명칭)들은 불턱(제주해녀 전용 바닷가의 야외탈의장)에서, 발일하는 아낙네들은 수놓음에서, 일상 하는 게 의논”(90면)이었다는 불미대장의 발언을 통해, 제주사회에서 천시받아온 여성들이 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인정받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꿈꿔왔으며,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실제로 점쳐보던 이들이었음을 부각한다.

특히, 4·3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 초기, 제주잠수항일투쟁⁶¹⁾에 가 닿는다”⁶²⁾고 보는 작가의 관점은 여성들의 탈식민 해방운동으로서 잠수항일투쟁과 4·3항쟁 역사를 연결 짓는다. “말하자면 우리 잠수덜이 너깅 나깅(너와 내가) 모르게 비밀운동으로 참여한 건 바로 일제강점시대 잠수항쟁하고 줄이 쪽 이어전 내려온 거여.”(362면)라는 구절을 통해 잠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정치적 행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발화들이 오가는 해녀들의 공간 ‘불턱’⁶³⁾은 “잠수 개인의 신상

60) 한림화, 「불턱」, 『꽃 한송이 숨겨놓고』, 1993, 한길사, 176면.

61) “1931년부터 1932년 1월까지 지속되었던 제주도 해녀투쟁은 연인원 1만7,000여 명의 참여와 대소 집회 및 시위 횡수 연 230여 회에 달하는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이 사건은 제주도 해녀들이 해녀조합의 형조에 저항하였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항일운동으로 평가된다.”(박찬식,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 제30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7, 54면)

62) 한림화, 「초관 작가의 말: '4·3'에 가위눌린 40년의 세월」, 앞의 책, 695면.

63) “잠수(潛嫂)들이 물질하러 바닷가에 나갈 때 옷을 갈아입는 장소. 큰 바위라든지 암석으로 바람막이가 된 갯가에 화톳불을 피워 물질로 언 몸을 녹이기도 한다.”(한림화, 「불턱」, 앞의 책, 175면)

문제를 비롯하여 마을 전체의 삶이 야기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토론되며,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⁶⁴⁾지는 일종의 공론장 역할을 했다. 소설은 새마을(조천리)과 청산리(성산리) 잠수들이 불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화와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인민평등’, ‘완전독립’ 등의 구호가 그것만으로 해방공간의 다양한 열망의 전체상을 보여주지 못하며, 그러한 구호의 이념 틀을 초과하는 다양한 열망이 투쟁 현장에 깃들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특히 여성들의 존재라는 점이다. 작중에서 여러 여성 인물들에 의해 반복 서술되는 아래의 인용문들은 ‘인간해방’으로서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으로서 4·3과 그 이전 항쟁사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 남성 중심의 기존 가부장적 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발상도 함께 개진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① 삼봉이 각시가 작작 떠들고 자기가 하는 말을 참고삼아 들어보라고 했다. 앞으로 완전독립이 되고 백성을 토대로 하는 나라가 들어서면, 이제까지는 우리나라는 임금님 나라였던 게, 일본한테 그동안 먹혀서난 그런 나라는 안 되주게. 그것사 우리덜도 다 주장허는 거 아니라만은. (94면)

② 희복아. 난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좋다. 남자라고 여자 위에서 우쭐대고 여자는 어려서는 비바리라고 남자형제보다 낮은 대접 받으면 살고 시집가면 서방한테 놀려 살고, 다 같은 사람인데 왜 그런 차별적 삶을 사느니? 난 여자도 남자도 다 같이 사는 세상이 좋아. (199면)

③ 그러자 잠수패는 버릇처럼 쑥덕공론을 벌이더란다. 사람이 살아가

64) “불턱은 잠수 집단의 의회이며, 어린 사람에게는 물질과 인생을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다.” (위의 글, 176면)

는 데 색깔이 그리 중요할까.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 있잖느냐. 왜 하필 한 가지 색깔만 고집해서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느냐. (중략)

왜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나라를 정하는 데 색깔을 가져야만 할까. 나라를 근 40년 만에 되찾아놓고 고작 한다는 수작이 무슨 색깔로 나라를 칠할지 그걸 놓고 살 판 죽을 판 싸운단 말인가. (중략)

정삼봉이 각시는, 이 땅을 온통 제 것인 양 이래저래 하는 내로란 남정네들이 더 큰 문제라고 떠들질 않나, 저들은 열 달 동안 배 아파서 애 낳아보지 못하는 족속인지라 생명이 누구 것이건 간에 다 소중한 거라는 걸 몰라서 하는 짓이 천방지축 순서가 뒤바뀌고 앞뒤가 안 맞다.

사람이 있고 다음에 나라가 있는 법. 사람 알기를 벌레보다 우습게 여기는 제깃 것들이 만드는 나라 꼴이 오죽하겠는가. (224-225면)

위처럼 ‘임금님 나라’ 대신 ‘백성을 토대로 하는 나라’ 곧 인민이 주인이 되는 인민공화정체의 수립(①), “여자도 남자도 다 같이 사는” 양성평등의 세상(②), “한 가지 색깔만 고집해서 그것 때문에 살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나라가 있는” 세상 곧 비폭력과 휴머니즘, 다양성이 강조되는 세상(③) 등 해방 세상의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이 여성들의 입을 통해 주요하게 발화되고 있다. 특히 ①에서, 나라가 식민주의에서 벗어난 뒤에는 ‘임금님’ 대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곧 인민공화정이 들어서야만 ‘완전독립’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당대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소설은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 통일정부 수립을 통해 그러한 세상을 실현하려 한 제주에서의 해방기 통일운동의 성격을 보여준다.

한편, 것처럼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의 구체적인 정신은 양성평등이 전제된 ‘인간해방’이자 ‘여성해방’이어야 한다는 점을 당대 여성들의 입을 통해 드러낸다. 특히 작가는 “여자도 남자도 다 같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였던 ②의 김순덕의 신념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으로 수난당한 여인의 표상으로만 4·3에서 의미화되어온 여성상의 전복을 꾀한다. 실제로 최근의 4·3에 대한 많은 여성 구술 채록은 “문맹퇴치, 평등사회에 대한 지향, 봉건적 억압으로부터의 여성해방 등을 목표로 세운 미군정기 여성운동”⁶⁵⁾으로서의 통일운동에 참여했던 주체적 여성상의 면모를 끌어내고 있다.⁶⁶⁾

인용문 ③은 작중 누구보다 당찬 성격으로 묘사되는 청산리 잠수회장 ‘정삼봉이 각시’의 발언이다. 여기서 한림화는 그의 입을 빌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기본적으로 “열 달 동안 배 아파서 애 낳아”본 경험을 지닌 모성성에 있음을 말하면서, 생명 소중함을 몰라 “이 땅을 온통 제 것인 양 이래저래 하는 내로란 남정네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작가가 보기에, “사람 알기를 벌레보다 우습게 여기는” 점에서 반공 정권의 폭력과 공산 진영의 대항폭력은 그 층위가 동일하며 그러므로 새 세상을 향한 ‘운동’의 중심에는 여성이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성과 돌봄 윤리를 자연적인 여성성으로 전제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정치구조의 전복을 꾀한다는 발상은, 자칫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가부장적 질서에 기반한 기존의 성 역할 구도를 재생산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여성들에게서 발휘되는 비폭력적 관계성을 기존의 정치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며 시선의 ‘주체’ 자체를 바꿔내고

65) 양경인, 『선창은 언제나 나의 몫이었다: 여성해방의 꿈을 꾀 제주4·3여성운동가의 생애』, 은행나무, 2022, 7면.

66) 이를 대변하는 잠수 김순덕은 여성이면서도 “하도 아무저서”(40면),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고 당차게 댄비는” “대단한”(45면) 인물로 반복 강조된다. 흥미로운 것은, “옛날 김순덕이 조상 중에는 날개 달린 장수도 있었단다”(40면)라는 구절을 통해, 대체로 남성 영웅들에게 적용되곤 하는(예컨대 제주 소설에서는 이덕구 같은) 아기장수 설화의 모티프를 여성 영웅인 김순덕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설문대할망 혼이 빙의했는지도 모른다”(45면)라며 설문대할망 설화의 모성적 모티프도 함께 적용해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소설은 여성과 남성을 아우르는 신화적 비범성을 김순덕에게 적용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영웅성을 전도시킨다.

있다는 점이다.⁶⁷⁾ 작가는 이러한 폭력적 대립 구도를 돌파하는 여성주의 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로 다양성 존중을 제시한다. “왜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나라를 정하는 데 색깔을 가져야만 할까” 등 색깔을 예시로 들어 다원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에의 회구가 여러 인물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래의 인용문들은 남성 주체들과 다른 관점에서 항쟁이 빛은 일련의 사태를 성찰하고, 대항폭력과는 다른 관점에서 저항적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④ 힘과 힘이 부딪치면 둘 다, 아니면 어느 한쪽이 깨어지고 만다. 힘으로 뭘 얻으려는 남편에게 회복은 절대로 동조할 수 없었다. 남편의 목적이, 제주 사람이 제 땅, 제 집에서 평안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면, 자신은 굳이 집을 버리고 산촌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남편이 얻어내는 세상을 집에서 보고 싶은 게 소망이었다.

회복은 남편이 백년 옳은 일을 한다고 쳐도 사람 목숨을 빼앗는 점에 일고의 가치도 두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살려고 남의 목숨을 업수이 여긴

67) “여성의 생물학적 근거에서 비롯된 모성의 논의를 출발 가능케 한 것은 물론 길리건(Gilligan, 1982)의 차이의 윤리학이다. 길리건의 주장을 시발로 하여 여성의 현실을 설명함에 있어 여성의 몸의 특질에 대한 강조는 본질주의라는 비판과 한계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윤리학은 젠더화된 주체인 여성들이 체화하고 있는 여성들의 감정들(women’s emotions)을 재평가의 요소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그 중 무엇보다도 으뜸인 것은 “돌봄”(care)에 대한 평가로서, 돌봄은 타자와의 갈등에서 어떤 연역이나 합리적 계산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최소한의 도덕성을 위해 감정을 부분적 기초로 포용할 것을 주장한다(Held, 1993: 52). (중략) 코넬(Cornell)은 자신의 페미니스트 이론화 작업을 ‘여성성의 회복을 토대로 한 윤리적 페미니즘(ethical feminism)’이라 명명한다.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그의 “윤리적(ethical)”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타자에 대한 비폭력적 관계 및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타자성(otherness)의 열망을 가리킨다. 그것은 여성의 차이와 단일성(singularity)을 부정하는 어떤 의미체계 안에서 타자의 점유에 반대하여 싸우는 책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폭력적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강혜경, 「여성주의 윤리 시각에서 본 여성의 모성」, 『여성학논집』 제25집 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83-85면)

단 말인가. (중략) 살자고 하는 일에 죽음은 있을 수 없다. (198-199면)

⑤ “난 잘 몰라서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오젠 하민 우리도 놔덜쳐록 (남들처럼) 사람 백정도 된덴 허는 걸 말이라.” (중략)

무자구나(무턱대고) 평등세상 맨들젠 햄텐 하니 맨주먹으루 난 나났져. 나도 끼와 줍서 사정해연. 나가 된 유다른 배움이 있던 양 선싱아. 너쳐록 이 거룩헌 운동인들 잘 깨우칠 거니? 그냥 의중으루만 우리가 다 한모음(한마음) 먹고 나사민 될 테주 했주.

자신이, 아니면 한술밥을 먹는 누군가가 사람도 죽이고 마을도 불태우며 그렇게 투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만 새 나라 새 세상이 이룩된다고 김순덕은 산에 와 살면서도 감감 몰랐고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 (478면)

⑥ “용마슬 사람 중에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명완이엔 하는 순경이우다. 그 사람 빨갱이라마썸.” (중략)

“비킵서. 우리 애기 배고판 울엄실 거난 어서 강 젓 맥여사 하쿠다.”

순경은 움칠 놀라며 옆으로 비켜서고 말았다. 빌네 몸짓에서 가눌 길 없는 분노가 발산되면서 그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밀어냈던 것이다. (674면)

④의 인용문은 이덕구의 처인 ‘홍희복’의 시점에서 기술된 구절이다. 작가에 의해 재구성된 희복은 무장투쟁을 주도한 이덕구의 처이면서도 그의 사상에 온전히 동조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남편이 백번 옳은 일을 한다고 쳐도 사람 목숨을 빼앗는 점에 일고의 가치도 두고 싶지 않았”기에, “힘으로 뭘 얻으려는” 이덕구 등 산부대의 폭력성에 저항하며 산촌으로의 이주를 거부한다. “남편이 얻어내는 세상을 집에서 보고 싶은 게 소망이었다”는 발언은 희복이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준다. “쫓겨난 자들이 기존 체제에서 용납되지 않는 ‘다른 목소리’와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⁶⁸⁾로 택한 것이 입산이었다면, 여기서 희복은 끝까지 자신의 장

소를 지키면서 박탈된 권리를 되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구성적 외부로 배제되어야 하는 자가 포함의 문법을 전유해 본래의 장소에 머무르기를 택하는 것은 박탈당한 자신의 영토와 육체의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행위적 수행성을 보여준다.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에게 부과된 “온당한 자리”, 즉 제국주의적 주권이 부과한 추방된 자리에 머무르기를 거부”⁶⁹⁾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채로 “제 땅, 제 집에서” 해방 세상을 맞이하고자 하는 회복의 행위는 폭력적 저항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⑤는 투쟁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며 김순덕이 늘어놓는 회한 섞인 발언이다. 앞선 장면에서 김순덕은 동료 무장대원들이 마을에 불 지르고 경찰관을 잡아 죽인 일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불미대장과 함께 허탈해하다가 끝내 눈물을 흘린다. 김순덕은 자신이 산부대에 가담한 것이 “사람 백정”이 되는 길이었던 줄, “자신이, 아니면 한술밥을 먹는 누군가가 사람도 죽이고 마을도 불태우며 그렇게 투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만 새 세상이 이룩”(478면)될 것이었던 줄 꿈에도 몰랐다며 탄식한다. 이는 ‘새 세상’의 의미가 뒤바뀌어버린, 폭력 대 대항폭력의 구도가 빚은 일련의 사태를 돌아보게 한다.⁷⁰⁾ 이러한 발언이 항쟁 주체의 입을 통해 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은 4·3 역사의 항쟁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역사와 오늘날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작가의 관

68) 양창아, 『한나 아렌트, 쫓겨난 자들의 정치』, 이학사, 2019, 42면.

69)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앞의 책, 49-50면.

70) 소설에서 이와 같은 폭력에 대한 거부는 여성들에 의해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명월리 무장자위대와 돌통이의 갈등 장면도 그 중 하나이다. 명월리 자위대가 우연히 지나가던 농부를 잡아들일 때 돌통이는 “단 한 사람도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피를 토할 듯 울부짖었”(486면)으며, 아프지 않게 죽여달라는 농사꾼 어른의 간곡한 부탁이 무색하게 무리가 잔혹하게 죽창질을 해대자 “그 어른이 아프지 않게 죽여도랜(죽여달라고) 안 했다. 총 쏘양 죽여주지 나쁜 새끼덜, 버랭이만도 못한 인간 종내기야.”(487면) 하고 절규한다. 그에 살상하며 눈이 뒤집혀 있던 자위대원들이 펄떡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 그려진다.

점에 따르면 봉기 이후 남로당 주도의 무장투쟁으로 방향이 전환된 국면에서는 평화적 차원의 저항성을 압도하면서 폭력의 대결에 따른 수많은 희생을 낳았다. 무엇보다 특정한 형이상학 이데올로기로 일원화되는 순간 운동 당시의 복수적 행위성은 사라지고 그에 기반한 인간성은 와해되고 만다는 것이 한림화의 관점이다. 이는 항쟁 국면에서 여성해방을 주창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4·3의 전개 과정에서 탈각된 실제 현상을 통해서도 방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진정한 인간해방을 꿈꿔온 해방기 여성들의 꿈이 폭력적 대치 과정에서 좌절되어가는 순간을 비판적 어조로 드러내며, 반공국가의 폭력적 타자 식별이 유발한 인간성 상실을 대항폭력이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⑥에서 용마슬(실제 지명 용강)을 풍비박산 낸 전향자 ‘명완’을 고발하는 ‘빌네’의 발언⁷¹⁾은 ‘빨갱이’를 색출하는 과정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 아닌 주관적 호명의 문제임을 암시하며 반공 이데올로기가 구축한 상징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때, 빌네는 반공국민 대 빨갱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적대 구도를 체화한 채 그것을 교란하고 전복시키는 언어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빌네는 버틀러가 개념화한 ‘안티고네적’ 인물이 된다. “자신이 저항하고 있는 바로 그 권위적 목소리를 전유해서, 즉 그 목소리 안에 바로 그 권위에 대한 거부와 수용의 흔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전유를 통해서 자율성을 획득”⁷²⁾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빌네는 “우리 얘기 배고판 울 엄실 거난 어서 강 쫓 맥여사” 한다며 순경에게 비키라고 지시한다. 이때

71) 이 대목은 한림화의 전작인 『매고일지』의 장면을 변용한 것이다. 이 소설에서 설정된 빌네와 명완의 관계가 『한라산의 노을』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매고일지』에서는 “우리 마을 진짜 빨갱이 우두머리 명완이엔 하는 지로인이우다.”라는 대사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빌네의 결말이 처리되지 않은 『한라산의 노을』과 다르게 『매고일지』에서 빌네는 불붙은 집에서 도망치지 않고 아기와 함께 기꺼이 죽음을 맞는다.

72) 주디스 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친족 관계』, 조현준 역, 동문선, 2005, 30면.

“빌네 몸것에서 가눌 길 없는 분노가 발산되면서” 순경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밀어”내는, 일시적인 권력 전복의 순간이 형성된다. 죽음이 임박한 채로도, 심지어 자신을 속인 배신자 명완의 피를 물려받은 아기에 젖을 먹여야 한다는 압도적인 생명 지향의 정신이 ‘빨갱이’의 몸을 비인간화하고 통제하는 반공국가의 구조적 폭력을 넘어서는 시간성을 작가는 상상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림화는 한편으로 민중의 일원으로서 여성들을 민중 담론에 편입시킨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남성들의 ‘폭력성’(죽음/죽임)에 대항하는 힘이 여성의 비폭력(살림) 정신에서 나온다는 방식의 대항담론을 개진하며 남성 중심의 민중 담론에 전복을 꾀한다. 즉 소설 속 전복의 상상력은 외세와 중앙에 의한 물리적·구조적 폭력만을 향하지 않으며, ‘폭력=남성성’의 도식 속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 구도 자체도 겨냥한다. 요컨대 『한라산의 노을』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행위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거나 혹은 그것을 체화한 채로 교란시킴으로써 국민국가와 지배담론의 경계를 뒤흔드는 정치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⁷³⁾ 아울러 그것은 ‘민중항

73) 이 글에서 더 논의를 개진하지는 못했지만 소설의 에필로그 역시 이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에필로그에서 한림화는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마을의 구성원이었던 ‘창원이 어명’(용마슬 출신)과 ‘종희’(새마슬 출신, 함중민의 누이)가 새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검속의 시행으로 ‘창원이 어명’은 지서에 불려가고, 순경의 호명에 종희는 그의 이름 석 자가 ‘한홍옥’이었음을 그제야 알게 된다. 모슬포 상모리의 ‘고구마창고’에 갇혀 있던 한홍옥 등은 송악산 첫알오름 탄약고 터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다. 용딩이에 “빨갓(벌치갓) 담듯이” 포개어진 시체 더미에서 종희는 “우리 어명은 새 미녕적삼 입었수다”(681면)라며 ‘어명’ 한홍옥을 찾고 또 찾는다. 이때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사람들이 다시 시체들을 구덩이에 던지는 모습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비극으로 끝나는 듯한 장면이지만, 여기에서 소설은 추방당한 자들의 연대를 보여준다. ‘창원이 어명’이라고만 호명되던 ‘한홍옥’의 이름 석 자를 부르며 죽은 자를 찾는 종희의 행위와, 그들이 짧은 순간에 가족을 이루었던 연대의 순간은 가부장제와 반공 이데올로기로부터 초월된 새로운 지평에 놓인다. 이를 익명성을 강요받은 여성들이 혈연과 마을 공동체의 집단 정체성까지를 뛰어넘어 그러한 익명성을 토대로 새롭게 관계성을 형성해간 순간으로 의미화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쟁론'의 의미망 안으로 온전히 포섭될 수 없는 해방공간의 다성성을, '민중'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확장하거나 혹은 그것의 동일성에 균열을 내는 여성들의 이질성을 함께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4·3의 기억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유하게 한다.

한림화의 이와 같은 성찰은 무엇보다 4·3을 비롯한 폭력적 과거사를 청산하는 과정이 "공동체가 외부의 적과 타자에게 돌렸던 죽음충동을 제 자신에게 돌리며 성찰하는 과정"⁷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자를 구성적 외부로 축출하는 적대적 배제가 항상 모든 폭력적 역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폭력의 반복과 재생산 구조를 끊어내고 진정한 이행기 정의를 모색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죽음/죽임 대신 '살리는 삶'을 지향하는 여성주의적 가치를 4·3의 역사로부터 끌어올리려 한 작가정신의 반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점이 민주화 이행기인 1991년에 발표된 『한라산의 노을』이 이룩한 성취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5. 나가며

이 글은 민주화 이행기에 발표된 제주 작가 한림화의 4·3 소재 장편 소설 『한라산의 노을』을 살핌으로써, 아직 종결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이행기 정의 실현의 문제를 재인식해보고자 했다. 이 시기 제주사회에서 많은 이들에 의해 주창되었던 4·3 민중항쟁론은 오늘날 '역사화'된 4·3의 기억이 간과하는 어떤 꿈이나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여기에서 다시 작가 한림화는 '민중항쟁'으로 호명된 4·3 당시의 기억에서 간과된 어떤 꿈

74) 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6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142면.

이나 가능성에 주목하였는가를 살폈다. 그리하여 민주화 이행기에 제주의 여성 작가가 추구했던 기억투쟁 전략이 오늘날과 당대에 4·3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에서 농친 측면을 짚어내고 있음을 버틀러와 아타나시오우의 박탈, 수행성 개념을 경유해 논증해보고자 하였다.

1980년대 후반 폭력적 과거사를 복원하고 재현하는 기억투쟁의 과정에서 한림회를 비롯한 몇몇 제주 문인들이 4·3을 민중항쟁으로 의미화한 시도는 당대 한국 문학장의 구조와 연동되면서도 그것과는 변별되는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민주화 이행기를 지나 중심부 문학권에서 빠르게 퇴조하기 시작한 민족·민중 담론을 전유하여 4·3을 문학화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의 이행기 정의 문제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내적·제도적 층위를 넘어 미국 주도의 제국질서와 맞물린 분단·반공체제의 현재성에 까지 닿아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게 한다.

리얼리즘적 역사소설의 형식을 취한 이 소설은 4월 3일의 봉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순간들에서 '민중'이 출현한 순간을 포착한다. 이때 작가가 4·3 전사(前史)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전략은 제주 민중들과 여성들의 복수적 행위성을 복원하는 과정과 연동된다. 특히, 소설은 미군정 주도의 제국주의적 경찰폭력이 해방공간에 고스란히 반복된 현상을 꼬집으면서 4·3 전사를 서술하는 가운데 무장봉기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이를 통해 4·3의 역사를 한반도 탈식민 해방운동의 계보에 편입시킨다.

경찰권력에 의한 탈취적 형태의 박탈을 재경험한 제주 민중들에게 투쟁의 결심은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명확하게 자각한 데서 우리나라보다 기보다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 이웃의 죽음을 목격한 데서 발휘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소설은 이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들이 가족과 이웃의 죽음이나 서로 간의 교감을 계기로 '민중'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것은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그러한 처지를 공유하는 타자와의 육체적 감응을 매개로 타자화되어가는 이중적 박탈의 경험을 보여주며, 그러한 연대의 순간은 권

리 없는 자들이 권리 있음을 선언하는 복수의 수행적 실천으로 말미암아 도래하지 않은 해방의 상상력을 발산하는 정치적 행위의 장소가 된다. 이와 같이 4·3민중항쟁에서의 민중 구성 과정을 그려내는 방식은 이념적 각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행위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이념적 실천 주체로서의 민중의 정체성을 강조한 1980년대 민중문학의 경향과는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작가의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인간해방’으로 서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으로서 4·3과 그 이전 항쟁사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한림화는 제주사회에서 천시받아온 여성들이 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인정받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꿈꿔왔으며,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실제로 점쳐보던 이들이었음을 부각한다. 작가는 기존의 폭력적(남성성) 정치구조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돌봄 윤리가 체화된 여성성(비폭력)에서 찾는다. 도래할 해방 세상의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으로 여성성을 앞세우는 발상은 여성의 정체성을 민중 담론의 동일성 안으로 하위위계화시키는 1980년대 남성중심적 민중 담론 경향과 거리가 있음은 물론, 탈정치적 개인성이 강화된 90년대 이후의 여성 문학장의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당대 한국 문학장과 여성 문학장 안에서 의미 있는 장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존의 4·3 문학장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특히, 2000년대 이후 4·3소설의 재현 방식(특히 여성 대상)이 주로 수난상이나 애도 서사에 치중되어온 경향을 염두에 둘 때, 적극적 항쟁 주체이자 (반공과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포괄하는) 지배질서를 교란하는 존재로 여성을 형상화한 이 소설은 추후 4·3소설의 상투적 재현 전략을 돌파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행기 국면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4·3 역사를 재의미화한 한림화의 기억 투쟁 전략은 당대와 오늘날의 ‘민중’의 행위성이 잘 부각되지 않는 현재의

4·3 담론 지형과 문학 지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한편, ‘해결’, ‘종결’로 나아가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행기 정의 실현 과정이 담지한 미결성을 한층 첨예하게 재인식하도록 유도한다. 그런 점에서 한림화의 이 작품을, 오늘날의 한국 담론장과 문학장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서 일종의 동시대적인 것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장천, 2016.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1·2·3, 한길사, 1991.

2. 단행본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945-2010』, 민음사, 2020.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49~79면.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 4·3의 담론정치」,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88, 242~267면.
김영범,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공저,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26~68면.
김종민, 「해설: 4·3진상규명을 향한 여정」,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장천, 2016, 682~685면.
도미야마 이치로,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오키나와 전후사(戰後史)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해안, 2010, 215~247면.
문경수, 「재일 제주인의 시각에서 본 제주4·3」, 고성만 엮음, 『비판적 4·3 연구』, 한그루, 2023, 51~78면.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양경인, 『선창은 언제나 나의 몫이었다: 여성해방의 꿈을 낀 제주4·3여성운동가의 생애』, 은행나무, 2022.
양창아, 『한나 아렌트, 쫓겨난 자들의 정치』, 이학사, 2019.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 4·3항쟁의 배경 - 제주도 인민위원회,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88, 51~96면.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김웅산 옮김, 자음과모음, 2016.
주디스 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친족 관계』, 조현준 역, 동문선, 2005.
주디스 버틀러,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웅산·양효실 옮김, 창비, 2020.
질 들뢰즈, 『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한림화, 「초판 작가의 말: '4·3'에 가위눌린 40년의 세월」, 『한라산의 노을』, 장천, 2016, 688-701면.

3. 논문

- 강혜경, 「여성주의 윤리 시각에서 본 여성의 모성」, 『여성학논집』 제25집 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83-85면. 81-116면.
- 권귀숙, 「4·3의 기억과 젠더 이미지: 4·3 영상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4, 241-271면.
- 김동윤, 「상상력, 혹은 그 이전의 문제 - 제주소재 소설의 결가지 읽기」, 『섬의 문학』 창간호,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 1995, 161-176면.
- 김동춘,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 행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3년 상반기(통권 제23호),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110-141면.
- 김득중, 「1980년대 민중의 발견과 민중사학의 성과와 한계」, 『내일을 여는 역사』 2006년 여름호(제24호), 재단법인 역사와 책임, 2006, 51-67면.
- 김상봉, 「폭력과 윤리 - 4·3을 생각함」, 『인문학연구』 제32집,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3-44면.
- 김소영, 「4·3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문학적 재현의 새로운 모색: 민주화 이행기 4·3소설에 나타난 항쟁 담론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96집, 2024, 619-662면.
- 김예림, 「전쟁, 소유, 탈락: 전시 "가옥상실"과 "가옥과괴"의 자리에서」, 『동방학지』 제194호, 동방학지, 2021, 1-26면.
- 김요섭, 「이행기 정의와 서사: 민주화 이후 문예지 복간과 재현의 정치」, 『상허학보』 제64집, 상허학회, 2022, 399-444면.
- 박명림,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 - 탈냉전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2, 69-91면.
- 박상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민중·민족문화운동의 미디어성과 잊힌 가치들 - 집회의 문화적 형식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3호, 2021, 87-114면.
- 박찬식,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 제30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7, 39-68면.
- 양현혜, 「3·1운동과 역사 창조의 밀알」, 『기독교사상』 2016년 3월호(통권 제687호), 대한기독교서회, 2016, 244-253면.
- 이선옥,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 - 젠더, 민족, 민중의 교차」, 『여성문학연구』 제6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 52-76면.

- 이소영, 「기억의 정치와 ‘법을 통한 과거청산’ 담론 비판」, 『외법논집』 제35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71~285면.
- 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6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105~148면.
- 이재승, 「제주 4·3항쟁론과 자결권」, 『일감법학』 제49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323~368면.
- 정근식, 「이행기 정의와 구술사」, 『구술사연구』 제13권 2호, 한국구술사학회, 2022, 122~163면.
- 정혜옥, 「주디스 버틀러의 전쟁 비판: 전쟁 프레임에 저항하는 정동적 연대의 가능성」, 『문학과 영상』 제24권 2호, 문학과영상학회, 2023, 513~543면.
- 최정기,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4권 2호, 한국지역사회학회, 2006, 3~22면.
- 한경희, 「제주 민중에게 제주 4·3은 무엇이었는가 - 민주화 이행기 제주 4·3이 민중항쟁으로 재현되는 과정과 방식」, 『우리문학연구』 제79집, 우리문학회, 2023, 481~524면.
- 홍기돈, 「토벌대·남포당과 길항하는 공동체의 사상과 문화 - 장편소설로서 『한라산의 노을』의 의의를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제26호, 춘원연구학회, 2023, 403~431면.

4. 기타 자료(기사·보고서·자료집)

- 김남희, “제주의 소설가 한림화씨 “생의 끝까지 작가로서 충실하고 싶어요””, 여성신문, 2011.11.11.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4·3특별위원회)·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플랜비, 『제주 4·3정명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23.
- 한림화, 「‘제주4·3사건’ 진행 시 제주여성사회의 수난과 극복 사례 - 출처 『한라산의 노을』 집필 전 자료수집 노트를 펼쳐보니」,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역사의 상처, 문학의 치유: 제주4·3항쟁 70주년 전국문학인 제주대회 4·3문학 세미나』 자료집, 2018.

<Abstract>

Rewriting the early history of 4·3 as a narrative
strategy of transitional justice and restoring Jeju
People/Women
– focusing on Han Lim-hwa’s “*Sunset on Halla Mountain*”

Kim, So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novel “*Sunset on Halla Mountain*” by Jeju writer Han Rim-hwa, which was published during the democratic transition period, in order to reconsider the unresolved issue of achieving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n society. During this period, many in Jeju society claimed that 4·3 was a ‘People’s uprising’. The paper seeks to explore the perspectives considered at that time but now overlooked in today’s ‘historicized’ memory of 4·3. Additionally, it examines how Han Rim-hwa, in her work, explores the possibilities overlooked in the memory of the 4·3 called the ‘People’s uprising’. In particular, in this novel, Han Rim-hwa convincingly depicts the process through which individuals, experiencing dispossession due to police violence, unite to form a concerted action. In doing so, she integrates the history of 4·3 into the lineage of Korea’s anti-colonial liberation movement.

Above all, from the author’s feminist perspective, this novel portrays the 4·3 and the preceding history of resistance not only as a movement for ‘human liberation’ but also as one for ‘women’s liberation’. The author explores the potential of challenging the violent political structures through femininity and care ethics, emphasizing non-violence. The novel highlights feminist values that prioritize ‘saving life’ over death or killing,

drawing from the history of 4·3. The Memory Struggle strategy of Jeju female writer Han Rim-hwa, who reinterpreted the history of 4·3 during the democratic transition period, prompts a fresh examination of the issue of transitional justice in today's Korean society.

Key words: Jeju 4·3, 4·3 literature, memory struggle, discourse of the popular uprising, transitional justice, feminism

투 고 일: 2024년 5월 29일

심 사 일: 2024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수정마감일: 2024년 6월 25일